

‘로스트벨리’ 동물과 더 가까워졌다

에버랜드, 소형 수륙양용차 도입

천장·창문 개방... 눈 앞에서 동물들 관람 기린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도 가능 사전 예약시 18만원... 체험시간 약 30분

‘천장에선 기린이 내려오고, 창문에선 코끼리를 만날 수 있다.’

개장 1주년을 맞은 에버랜드(경기도 용인시)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벨리’가 더욱 특별해졌다. 소형 수륙양용차로 동물 체험을 극대화하고 육지와 수로를 이동하는 짜릿한 스티플을 만끽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수륙양용차는 길이 5.6m, 폭 1.9m, 높이 2.1m, 무게 3.2톤으로 천장과 창문이 모두 개방돼 있다. 바로 눈앞에서 동물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절정은 수륙양용차량이 육상에서 수로로 입수하는 순간이다. 제트스키와 같은 워터제트 방식(물을 빨아 올린 후 다시 분사하면서 추진)으로 약 5초 동안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길을 가르며 순간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또 일반 자동차에서는 들을 수 없는 워터 제트 엔진의 거친 엔진 소리는 사파리 탐험의 재미를 높여준다.

지프를 타고 이동하면 코끼리, 기린, 낙타, 코뿔소, 백사자 등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는 에버랜드의 스타동물이다. ‘종아’, ‘안녕’, ‘누워’ 등 7개 단어를 구사하는 신기한 체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18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기린 ‘장순이’와 새끼들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초식동물인 코뿔소와 육식동물인 치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수로 건너편으로 보이는 백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들의 위용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다.

스페셜투어의 체험시간은 약 30분으로, 40인승 차량으로 관람하는 일반 로스트벨리 투어보다 2배 길다.

이와 함께 로스트벨리는 개장 1주년을 맞아 ‘기다림마저 즐겁다’라는 테마로 입구부터 차량 탑승구까지 대기동선에 다양한 체험과 관람요소를 갖췄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로스트벨리 얼라이브’는 가상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10대의 UHD TV를 통해 볼 수 있는 ‘UHD Zoo’는 미세한 털의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실감나는 영상 감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로스트벨리는 4만1000㎡ 대지에 협곡과 수로, 폭포, 늪, 평원 등 실제 동물들의 서식지처럼 꾸며졌고, 30종 3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체험 비용은 주중과 주말 20만원이며 평일 홈페이지 사전 예약시 1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주요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개장 1주년을 맞은 에버랜드의 로스트벨리가 더욱 생생한 사파리 체험을 위해 소형 수륙양용차를 도입했다. 관람객들이 차량 안에서 기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사진제공 | 에버랜드

“보이스피싱·스미싱, 앱으로 예방해요”

이동사 ‘스팸차단 앱’ 앞다퉀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피해 예방 도움 첨부된 URL 안전성 인증해주는 서비스도



이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탓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차단해주는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LG유플러스에서 내놓은 ‘U+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이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엔 첫 2차 피해 사실까지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문자소액결제사기)’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접근을 알려주고, 사전에 차단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화 플랫폼 ‘T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경우 어떤 목적의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넣었다. 동일한 업체로부터 같은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KT는 자회사 kt cs를 통해 스팸차단 앱 ‘후후’를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엔 웹주소(URL)가 포함된 문자의 스미싱 위험여부를 알려주는 기능과 특정 전화번호 정보나 스팸신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조회 기능도 추가했다.

LG유플러스도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U+스팸차단’ 앱을 내놨다. 스팸차단 내역 조회와 복원 및 신고, 악성코드 의심 앱 알림, 백신 정기검사 활성화 기능 등을 갖췄다. 이 밖에도 악성코드를 감시하고 치료해주는 인프라이웨어의 ‘패밀리가드’와 스미싱을 차단해

주는 KG모빌리언스의 ‘닥터스미싱’ 등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앱도 있다.

안전성 입증하는 서비스도

메시지에 포함된 URL의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기업간거래(B2B)서비스도 개발돼 확대됐다. 주인공은 안심하고 주소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린URL’(www.cleanturl.org). URL 앞의 ‘cleanurl.org’만 확인하고 클릭하면 본래의 웹 페이지로 안내해 준다. URL을 누른 뒤 피해를 입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라 손해를 보상 받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 웹 페이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클린URL’을 발급한다. 발급된 클린URL은 디지털문과 웹 페이지의 코드패턴을 모니터링 해 안내될 웹 페이지가 달라졌거나 스미싱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안내, 차단, 경보, 우회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현재 일부 6.4지방선거 후보자들도 클린URL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무통장·무카드 비밀번호 혼자만 알고 계세요”

다른 금융사기 계좌 사용... 명의자도 처벌 ATM 통해 사기대금 손쉬운 입출금 가능

#사례: A씨는 2월 모금용사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요구대로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계좌를 개설한 뒤 승인번호와 계좌비밀번호는 물론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냈다. 한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대표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무통장·무카드거래’가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이 같은 신종 사기수법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였다. 그리고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사용했다. 무통장·무카드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표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금융제재를 당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대응요청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웰컴금융그룹 공개 채용

금융사무직 등 5개 부문... 25일까지

국내자본 1위 소비자금융기업 웰컴과 최근 인수를 앞두고 있는 저축은행, 해외사업 진출을 통해 초우량 종합소비자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웰컴금융그룹이 ‘2014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금융사무직, 웹디자인, 금융 IT 개발, IT인프라, 정보보호 부문이다. 근무지는 서울,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로 4월25일까지 온라인 입사지원서를 받는다.

금융사무직 및 웹디자인은 초·대졸 이상자, 그 외 부문은 대졸 이상으로 3~10년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해외여행 및 해외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발 과정은 서류전형, 면접, 입문교육 대상자 발표, 입문교육 수료, 최종합격으로 진행된다. 전형 안내 및 합격발표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한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소비자금융시장”이라며 “향후 4배의 성장에 예상되는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웰컴금융그룹에서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SK브로드밴드 ‘행복체험관’ 오픈



SK브로드밴드는 장애학생들의 취업지원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적 기업 행복탄색재생에 ‘행복체험관’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체험관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업 후 수행할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고, 직장 내 예정 교육 등 사회적응을 위한 이론교육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 1회 4개월 과정으로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4개월 직업체험 이수 시 수료증을 지급하고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인 행복탄색재생 인력지원 시 우선적으로 수료 학생을 채용할 계획이다.

블리자드 ‘하스톤 아이패드 버전’ 출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하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의 아이패드 버전(사진)’을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유저들은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아이패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워크래프트’ 시리즈에 기반한 블리자드 최초 무료 카드게임 ‘하스톤’은 3월 PC로 정식 출시돼 전 세계에 1000만명 이상이 즐기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패드 버전은 ‘하스톤’ 공식 홈페이지(www.tryhearthstone.co.kr)와 한국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1회 충전 415km 주행...수소연료전지차 대중화 머지 않았다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발표 가격 절감·충전소 인프라 확대 과제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현대자동차는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제개발원 마복캠퍼스에서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2015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를 1만대 이상 보급해 2020년에는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은 2020년까지 전체 산업 수요 중 7.6%인 800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비교할 때 가장 친환경적이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항속거리나 동력 성능에 가장 근접해 있다. 또 연료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고, 액화 및 고압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차 독자 기술 개발로 상품성 강화

현재 현대차가 지니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기술은 3세대 기술이다. 1세대 기술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수소연료 압축 기술이 350기압에서 700기압으로 늘면서 항속거리도 상용화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15km(자체 시험 기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갈 수 있다. 또한

가 운전 중이다. 2025년까지 전국 20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직접 타봤더니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는 어떻게 다를까. 전기차가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돌린다면, 수소연료전지차는 모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를 수소연료를 통해 직접 공급받는다. 근본적으로는 전기차인 셈이며 다만 동력원이 배터리나 수소연료나만 다를 뿐이다.

실제 시승해 본 소감도 일반적인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력이 동력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높은 토크감을 느낄 수 있다.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0~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5초로 일반적인 가솔린 준·중형 세단 수준으로 세팅됐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30~50km의 저속구간에서의 가속 성능이 인상적이었다. 다웰 세단 수준의 가속감을 낸다.

최고 속도는 160km로 고속도로 주행에도 무리가 없다. 항속거리는 415km로 발표됐지만, 최대 6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 1회 충전 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

용인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nwon